

경기

- 서울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9.2% 증가
 - 12월 서울지역의 생산지수는 106.3로 전년동월대비 9.2% 증가
 - 12월 서울 제조업부문 출하 증가, 재고 증가로 의도된 재고증가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백화점, 대형마트 각각 증가
 -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15.5%, 대형마트 5.0%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1.2% 증가
 - 백화점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가전, 의복, 음식료품 판매호조로 15.57% 증가, 대형마트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운동, 오락용품, 가전 등의 판매호조로 5.0% 증가
- 12월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상승, 전국과 보합
 - 농축수산물물은 전월대비 2.6%, 서비스는 전월대비 0.2% 각각 상승
 - 생활물가 전월대비 0.4% 상승,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5.0% 상승

고용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60.9%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 12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보합인 60.9%로 나타남
- 12월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0.5% 증가한 반면, 전국대비 청년취업 문제 심각
 - 12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5천명(0.3%) 증가한 4,877천명인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39천명(1.4%) 증가, 여자는 14천명(-0.7%) 감소
 - 청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0%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0.3%) 1.7%p 차이를 보임
 - 55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0.9%로 꾸준히 증가,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3.4% 상승
-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한 4.1%, 전국대비 0.6%p 높음
 - 12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4.1%로, 남자는 4.4%, 여자는 3.6% 각각 상승
- 서울의 고용률 58.4%로 전국의 고용률(57.6%)보다 0.8%p 높은 수준

부동산

- 11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11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조 5,85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7.7% 감소
 - 공공부문에서는 신규주택 및 토지조성 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대비 14.2% 감소, 민간부문에서는 신규주택 및 재개발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54.3% 감소
- 12월 기준 서울 주택매매가격 보합세
 - 서울의 강남지역(0.0%)은 금융규제 및 재건축 아파트 약세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이 지속되며 전월에 이어 보합 수준을 보였고, 강북지역(0.0%)도 매수세가 감소하며 보합세로 전환
- 12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전반적인 상승세 둔화
 - 서울 전반적인 주택전세가격은 둔화되었으나, 방학을 앞둔 학군수요 증가로 일부지역 강세 지속

금융

- 11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11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11조 651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0.33% 증가
- 11월 기준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764개로 전년동월대비 3.5% 증가
- 11월 기준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43개로 전년동월대비 52.7% 감소
- 12월 서울시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12월 서울의 수출은 35.6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55.7% 증가,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다음은 자동차부품, 편직물, 컴퓨터 등의 순
 - 12월 서울의 수입은 72.7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33.0% 증가, 수입 1순위는 반도체로 나타났고 다음은 컴퓨터, 석유제품, 자동차 등의 순

| 생 · 산 |

12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9.2% 증가

■ 전국의 12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33.9% 증가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2.9% 증가, 전년동월대비로는 석유정제, 음료 등이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의 호조로 33.9%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전문·과학기술, 예술·스포츠·여가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8% 증가, 전년동월대비로는 부동산임대, 보건·사회복지, 도매·소매 등의 호조로 5.3% 증가

■ 12월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9.2% 증가

- 서울시 생산지수는 106.3(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9.2% 증가
- 업종별로는 의복 및 모피, 전기장비 등 계절용 용품이 증가하였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6개월 만에 플러스 성장세로 반등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 및 경공업 부문 각각 증가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5.2% 상승하며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냄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1.4%로 3개월 만에 플러스 성장세로 반등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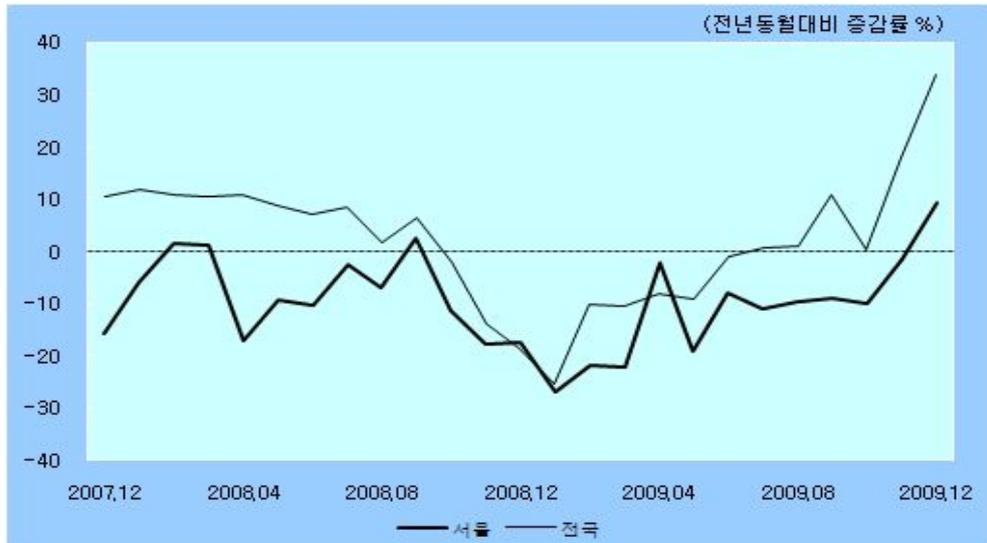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12월	8월	9월	10월	11월p	12월p	
전 년 대 비	전국	-18.7 (-9.5)	1.0 (-5.6)	11.0 (12.6)	0.3 (-3.9)	17.9 (2.4)	33.9 (2.9)
	서울 (제조업)	-17.5 (-1.9)	-9.6 (1.5)	-8.9 (10.4)	-10.0 (-1.5)	-1.4 (-5.8)	9.2 (8.7)
	중공업	-28.1 (7.4)	-13.6 (7.7)	-30.0 (-8.5)	-20.2 (2.3)	0.0 (4.6)	5.2 (13.0)
	경공업	-10.0 (-6.4)	-7.3 (-1.5)	4.1 (20.8)	-4.8 (-3.1)	-2.2 (-10.4)	11.4 (6.6)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5=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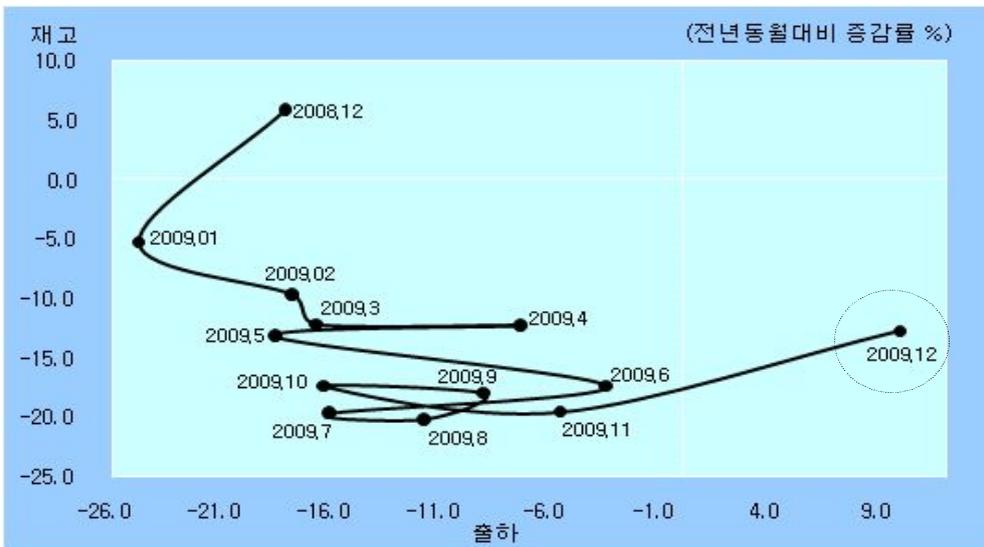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12월 서울 제조업부문 의도된 재고증가 단계

- 서울지역의 10월 중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143.3로 전년동월대비 12.8% 감소
 - 업종별로는 섬유제품, 식료품 등이 증가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통신 등에서 감소, 전월대비 4.8% 증가
 -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110.3(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9.6% 증가, 업종별로는 가죽 및 신발 등은 감소하였으나, 전기장비, 섬유제품, 의복 및 모피 기계장비 등에서 증가, 전월대비 9.4% 증가
 - 출하 증가, 재고 증가로 의도된 재고증가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전월대비 재고율, 중공업 및 경공업 부문 각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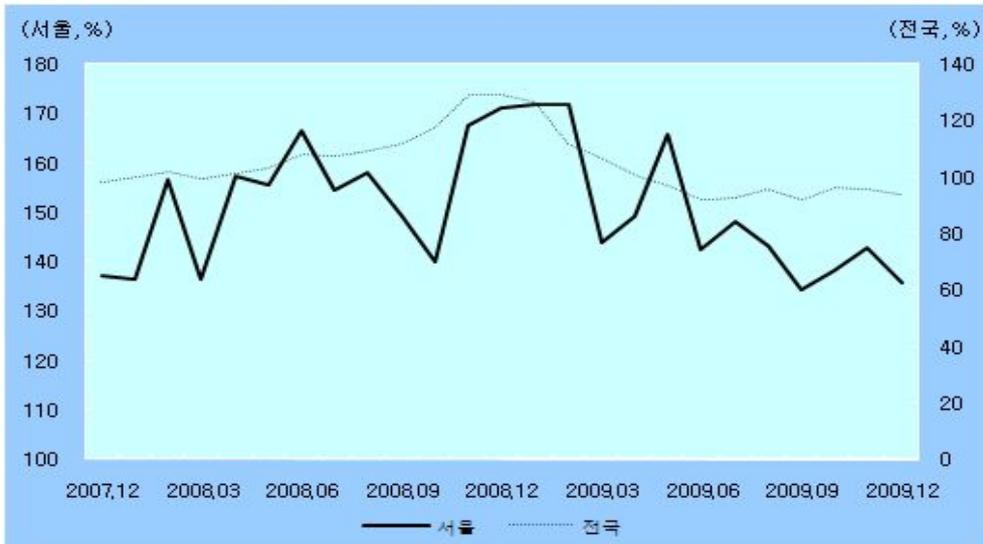
- 12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93.7%로 전월대비 1.9%p 감소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135.8%로 전월대비 7.0%p 감소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9.1%p 감소한 108.7%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5.2%p 감소한 146.3%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구 분		2009년						전월대비 증감
		2008년 12월	8월	9월	10월P	11월p	12월p	
재고율	전국	129.2	95.6	92.3	96.2	95.6	93.7	-1.9
	서울	171.1	143.1	134.5	138.4	142.8	135.8	-7.0
	중공업	150.4	120.4	134.3	145.0	117.8	108.7	-9.1
	경공업	177.6	150.0	129.6	131.3	151.4	146.3	-5.2

(단위: %)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12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부문별 증가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12.6% 증가

- 전국의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4조9,605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2.6% 증가함
- 백화점의 경우 전월대비 4.6%, 대형마트의 경우 3.7% 각각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백화점은 15.5%, 대형마트는 5.6% 각각 증가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백화점, 대형마트 각각 증가

-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6,897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1.2% 증가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15.5%, 대형마트 5.0%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1.2% 증가, 전월대비 백화점 6.1% 증가하고 대형마트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백화점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신규사업체 증가(전년23개 → 금년24개) 및 가전, 의복, 음식료품, 화장품, 운동오락용품, 신발 등의 판매호조로 15.5% 증가
- 대형마트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신규사업체 증가(전년65개 → 금년68개) 및 운동오락용품, 가전, 컴퓨터, 의복, 음식료품 등의 판매호조로 5.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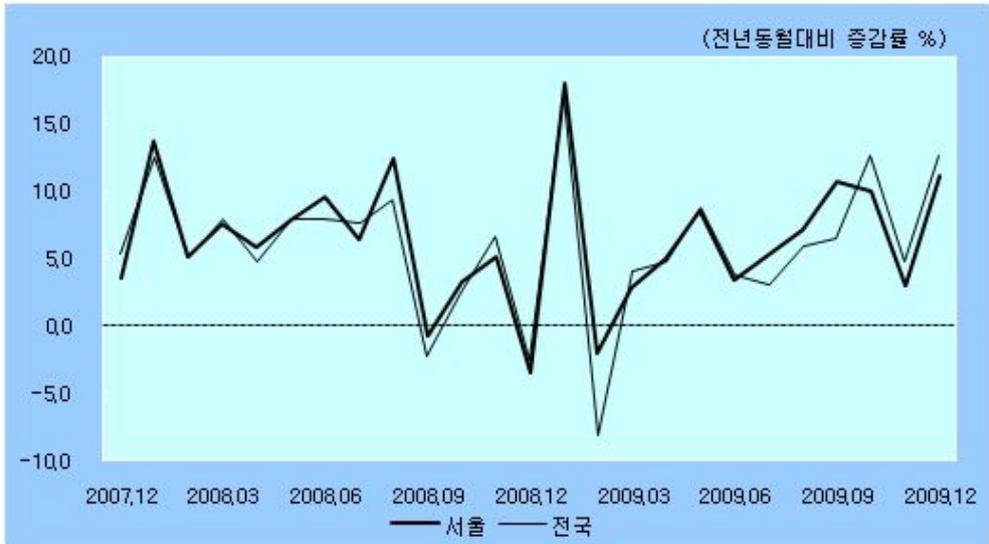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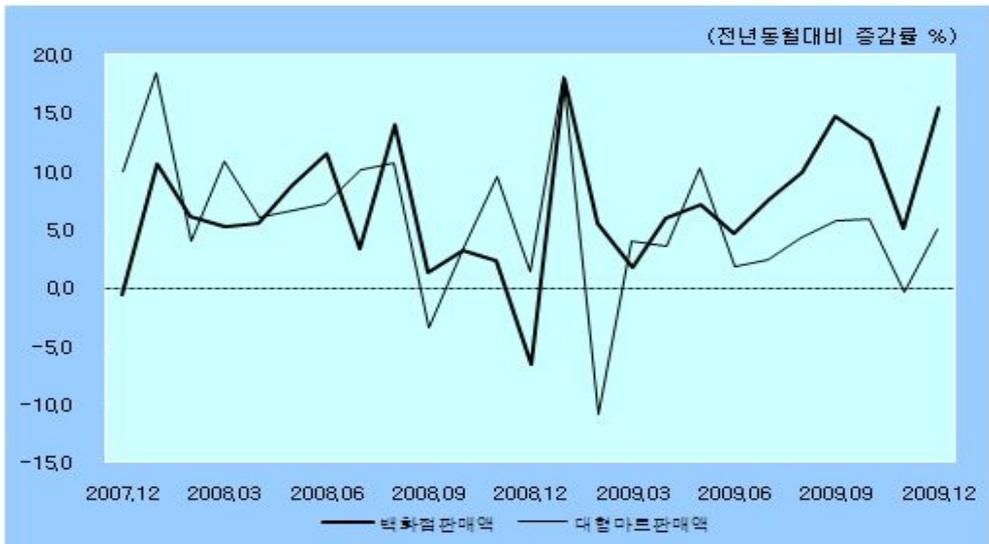
구 분	2008년	2009년					
	12월	8월	9월	10월	11월p	12월p	
판매액	전국	4404.3 (-2.6)	4061.4 (5.9)	4605.0 (6.5)	4647.9 (12.7)	4608.4 (4.7)	4960.5 (12.6)
	서울	1519.2 (-3.5)	1317.0 (7.2)	1570.6 (10.7)	1570.6 (10.0)	1580.9 (3.0)	1689.7 (11.2)
	백화점	898.0 (-6.6)	703.0 (9.9)	899.1 (14.7)	970.9 (12.7)	978.0 (5.1)	1037.3 (15.5)
	대형마트 (할인점)	621.2 (1.4)	614.0 (4.3)	671.4 (5.8)	599.7 (5.9)	602.9 (-0.3)	652.4 (5.0)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12월 서울의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4% 상승

- 전국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2개월째 상승
 -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8로 전월대비 0.4%로 상승하여 2개월째 상승
 - 생활물가지수 부문은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3.3% 각각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5.6% , 전년동월대비 5.8% 각각 상승
 - 16개 시도별 전월대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16개 시도 모두 상승

- 12월 서울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4% 상승으로 전국과 보합
 - 12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전도시:113.8, 2005년=100)로 전월대비 0.4%(전도시:0.4%), 전년동월대비 2.6%(전도시:2.8%) 각각 상승
 -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2.6%,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3.2% 각각 상승
 - 서비스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1.8% 각각 상승, 공공서비스는 전월대비 0.1% 하락, 개인서비스는 전월 대비 0.3%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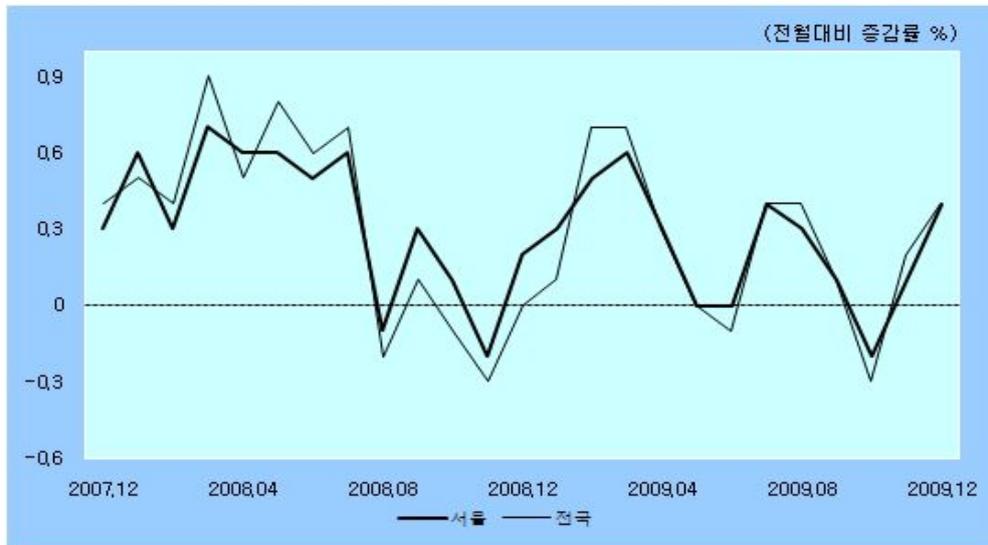
- 서울 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4%,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5.0% 각각 상승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전도시:0.4%), 전년동월대비 3.2%(전도시:3.3%) 각각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5.0%(전도시:5.6%), 전년동월대비 5.2%(전도시:5.8%) 각각 상승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비	전국	0.0 (4.1)	0.4 (1.6)	0.4 (2.2)	0.1 (2.2)	-0.3 (2.0)	0.2 (2.4)	0.4 (2.8)	
	서울	0.2 (4.1)	0.4 (2.3)	0.3 (2.6)	0.1 (2.4)	-0.2 (2.2)	0.1 (2.5)	0.4 (2.6)	
	상품 성질별	상품	0.3 (4.6)	0.5 (2.2)	0.4 (3.2)	0.2 (3.0)	-0.5 (2.5)	0.2 (3.8)	0.6 (4.2)
		서비스	0.1 (3.7)	0.4 (2.3)	0.2 (2.3)	0.0 (2.2)	0.0 (2.0)	0.1 (1.7)	0.2 (1.8)
	생활물가	-0.4 (2.9)	0.4 (1.3)	0.3 (2.0)	0.2 (2.0)	-0.3 (2.0)	0.0 (2.4)	0.4 (3.2)	
	신선식품	3.4 (-7.9)	1.7 (8.8)	1.7 (5.7)	-1.6 (5.8)	-2.8 (5.0)	-3.3 (3.6)	5.0 (5.2)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12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60.9%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 12월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
 - 전국 12월 15세 이상인구는 40,31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2천명(1.3%)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24,06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천명(0.1%) 증가
 - 성별로 남자는 14,225천명으로 122명(0.9%)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9,838천명으로 91천명(-0.9%)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59.7%로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
- 12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60.9%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 12월 15세이상인구는 8,34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1천명(0.7%)이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5,08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천명(0.7%)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남자는 72.6% 여자는 49.9%로 나타남
 -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3,26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천명(0.7%)이 증가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제활동 인구	전국	0.2 (-2.2)	0.3 (-0.7)	0.6 (-0.9)	0.7 (0.4)	0.3 (0.1)	0.2 (-0.1)	0.1 (-2.3)
	서울	-1.4 (-0.8)	-1.2 (-0.3)	-2.5 (-1.9)	-1.7 (0.1)	-1.2 (0.3)	0.1 (1.2)	0.7 (-0.2)
	남자	-1.1 (-1.1)	-1.0 (-0.4)	-2.3 (-1.8)	-1.6 (-0.2)	-1.2 (0.2)	0.1 (1.5)	1.0 (-0.2)
	여자	-2.0 (-0.5)	-1.4 (-0.2)	-2.8 (-2.0)	-1.8 (0.5)	-1.2 (0.5)	0.0 (0.8)	0.4 (-0.1)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60.4	61.7	61.1	61.3	61.3	61.1	59.7
	서울	60.9	61.3	60.1	60.2	60.4	61.1	60.9
	남자	72.4	73.1	71.8	71.6	71.7	72.8	72.6
	여자	50.1	50.2	49.1	49.4	49.6	50.0	49.9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취·업·자 |

12월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0.5% 증가

- **전국의 12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1만6천명 감소, 고령층 취업자는 증가**
 - 12월 취업자는 23,22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천명(-0.1%)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70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6천명(0.9%) 증가하였고, 여자는 9,527천명으로 142천명(-1.5%) 감소하여, 여성 취업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연령계층별로 보면 15~19세, 50대는 증가한 반면,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3% 감소하여 꾸준히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고령층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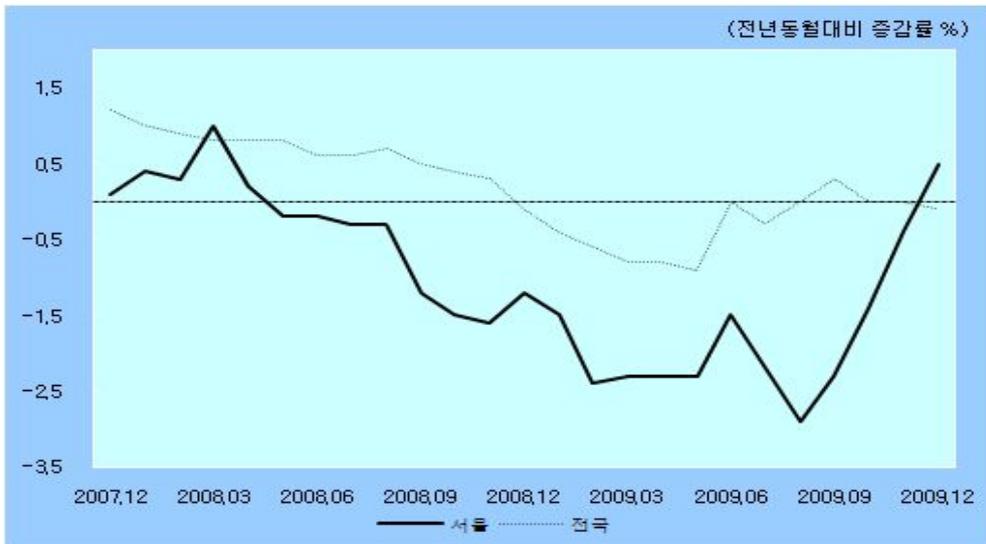
- **12월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2만5천명 증가, 청년층 취업자 수 2.0% 감소**
 - 서울의 취업자는 4,87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천명(0.5%)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13천명, 여자는 2,06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39천명(1.4%) 이 증가, 여자는 14천명(-0.7%)이 감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전가운수통산·금융업 39천명(5.2%), 도소매·음식숙박업 32천명(2.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2천명(1.2%)은 각각 증가하였으나, 건설업 42천명(-10.6%), 제조업 26천명(-4.9%)은 각각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0%로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0.3%) 1.7%p의 차이를 보여 전국보다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55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0.9% 상승,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연령별 취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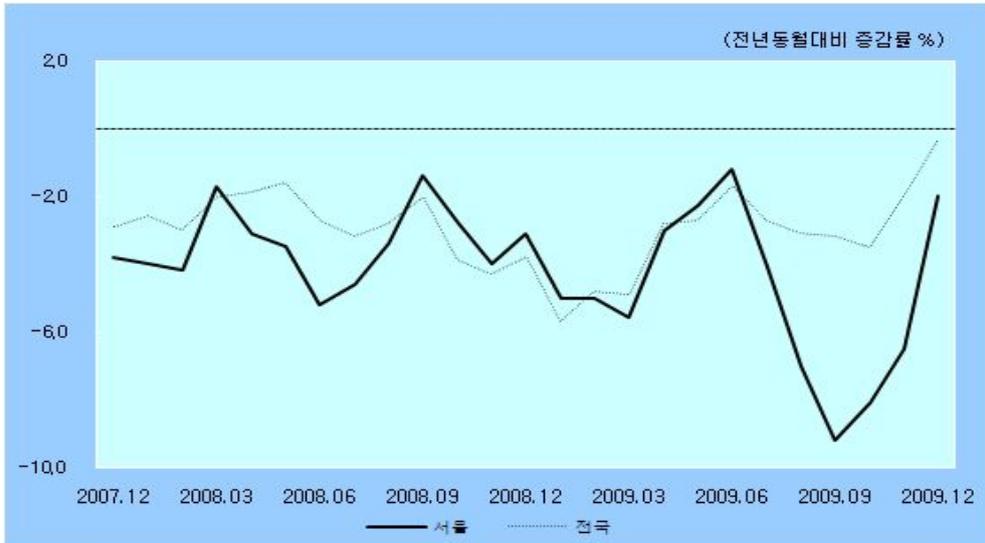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취업자	전국	-0.1 (-2.4)	-0.3 (-0.6)	0.0 (-0.9)	0.3 (0.8)	0.0 (0.2)	0.0 (-0.2)	-0.1 (-2.4)
	서울	-1.2 (-0.9)	-2.2 (-0.6)	-2.9 (-1.5)	-2.3 (0.3)	-1.4 (0.8)	-0.4 (0.8)	0.5 (0.0)
	남자	-1.5 (-1.3)	-2.5 (-0.7)	-3.2 (-1.4)	-2.6 (0.0)	-1.3 (1.0)	0.0 (1.1)	1.4 (0.1)
	여자	-0.9 (-0.4)	-1.8 (-0.3)	-2.4 (-1.7)	-2.0 (0.8)	-1.5 (0.4)	-0.9 (0.4)	-0.7 (-0.2)
청년층 취업자	전국	-3.8 (-1.0)	-2.7 (1.4)	-3.1 (-3.1)	-3.2 (-1.9)	-3.5 (-0.9)	-2.0 (1.7)	-0.3 (0.6)
	서울	-3.1 (-2.2)	-4.1 (-0.7)	-7.0 (-4.0)	-9.2 (-3.3)	-8.1 (-0.9)	-6.5 (1.6)	-2.0 (2.5)
고령층 취업자	전국	1.3 (-8.4)	3.7 (-1.6)	4.7 (0.1)	4.6 (2.0)	4.9 (0.6)	3.2 (-2.5)	1.6 (-9.8)
	서울	-1.0 (-2.2)	3.5 (-1.3)	2.2 (-1.4)	4.4 (2.9)	7.3 (2.1)	10.0 (1.3)	10.9 (-1.4)
	55-59세	1.1 (-2.0)	4.2 (-0.8)	0.3 (-2.3)	2.9 (2.0)	4.8 (0.6)	6.2 (2.0)	7.9 (-0.6)
	60세 이상	-2.5 (-2.5)	2.9 (-1.6)	3.7 (-0.7)	5.6 (3.6)	9.3 (3.2)	13.1 (0.7)	13.4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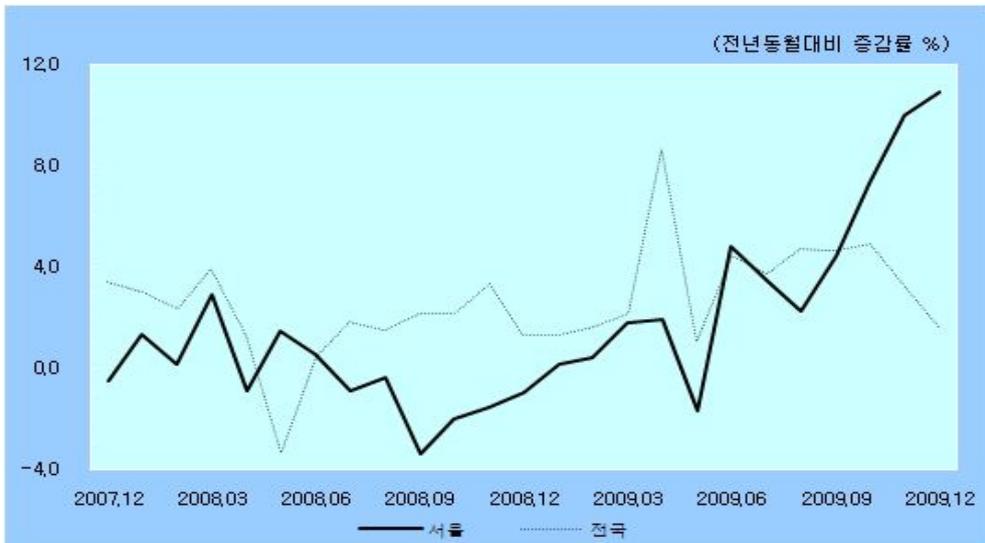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사무종사자, 전문·기술·행정관리자 각각 증가, 기능·기계조작·조립 등은 감소
 -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천명(23.7%), 사무종사자 37천명(4.5%), 전문·기술·행정관리자 28천명(2.0%)은 각각 증가하였으나,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26천명(-1.9%), 서비스·판매종사자 16천명(-1.2%)은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0.4% 감소,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0.8% 증가
 -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1,209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66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5천명(-0.4%)이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30천명(0.8%)이 증가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5천명(-0.5%), 무급가족종사자는 0천명(-0.1%)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16천명(6.0%)이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 7천명(-0.6%), 일용근로자 79천명(-15.7%)은 각각 감소

- 전년동월대비 36시간 이상 취업자 0.5%, 54시간 이상 취업자 0.6% 각각 감소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미만 취업자는 55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천명(5.9%)이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25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천명(-0.5%)이 감소하였음.
 - 36시간미만 취업자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9천명(11.1%)이 증가하였고, 18~35시간 취업자도 11천명(3.3%)이 증가하였음.
 - 36시간 이상 취업자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4천명(-0.5%)이 감소하였고, 54시간이상 취업자도 9천명(-0.6%)이 감소하였음.
 - 일시휴직자는 6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천명(33.1%)이 증가하였음.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6.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2시간 감소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12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산업별	제조업	-15.3 (-0.7)	-16.4 (-1.2)	-14.3 (-3.6)	-21.7 (-1.1)	-17.5 (0.9)	-6.6 (1.2)	-4.9 (1.1)
	SOC 및 기타서비스업	0.8 (-0.9)	-0.3 (-0.5)	-1.4 (-1.3)	0.4 (0.5)	0.9 (0.8)	0.4 (0.8)	1.2 (-0.2)
	사업·개인·공공서비스	4.2 (-0.6)	6.4 (-0.3)	4.9 (-1.8)	4.0 (-0.5)	3.6 (1.1)	2.1 (0.1)	1.2 (-1.5)
	도소매·음식숙박	-1.5 (1.5)	-3.6 (0.0)	-4.3 (0.0)	0.6 (1.5)	1.1 (0.1)	3.0 (1.5)	2.4 (0.9)
	전기·운수·통신·금융	-1.0 (-2.0)	0.1 (-0.7)	-1.2 (-1.6)	3.7 (1.2)	3.5 (1.1)	1.2 (0.5)	5.2 (2.0)
	건설업	-2.4 (-7.8)	-18.1 (-3.1)	-18.9 (-2.3)	-20.1 (0.4)	-16.2 (1.3)	-15.8 (2.4)	-10.6 (-2.0)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3.6 (-0.1)	2.2 (0.5)	2.3 (-1.0)	1.6 (0.1)	3.7 (-0.2)	2.4 (0.2)	2.0 (-0.5)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7.1 (-3.2)	-9.6 (-2.2)	-11.5 (-2.3)	-11.9 (-0.1)	-9.0 (3.4)	-3.3 (2.4)	-1.9 (-1.8)
	서비스·판매종사자	-1.2 (-0.7)	-2.6 (-0.4)	-4.9 (-1.7)	-0.8 (0.6)	0.1 (1.8)	-2.5 (-0.7)	-1.2 (0.6)
	사무종사자	0.9 (1.4)	3.5 (-0.2)	6.3 (-1.1)	4.9 (1.0)	1.1 (-2.9)	3.3 (1.7)	4.5 (2.5)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0.3 (-0.7)	-2.2 (-0.7)	-1.5 (-1.4)	-2.0 (0.5)	-0.8 (0.9)	0.3 (1.0)	0.8 (-0.2)
	비임금근로자	-5.5 (-1.5)	-2.2 (-0.1)	-6.8 (-1.9)	-3.2 (-0.3)	-3.1 (0.3)	-2.4 (0.2)	-0.4 (0.5)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실·업·률 |

12월 서울의 실업률 4.1%로, 전국대비 0.5%p 높은 수준

- **전국의 실업률 3.5% 상승하였으며,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
 - 전국의 12월 실업자는 88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9천명(15.5%) 증가
 - 성별로 보면 실업자는 남자가 58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0천명(15.8%) 증가하였고, 여자는 3.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천명(15.0%) 증가
 -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1%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여자는 3.0%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연령계층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15~29세, 50대 등 모든 계층에서 증가, 실업률은 15~29세, 30대, 50대 등 모든 계층에서 상승

-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4.1% 상승, 전국(3.5%)대비 0.6%p 높은 수준**
 - 12월 실업자는 20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천명(6.6%)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6.6%)이 감소하였고, 여자는 78천명으로 22천명(39.5%)이 증가
 - 실업률은 4.1%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4%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하였고, 여자는 3.6%로 1.0%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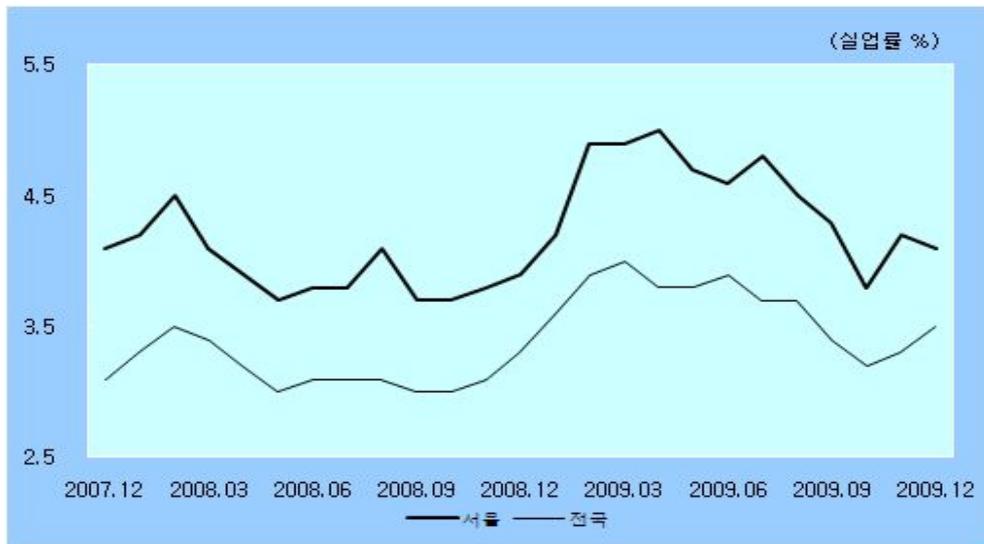
- **서울의 고용률 58.4%로 전국의 고용률(57.6%)보다 0.8%p 높은 수준**
 - 전국의 12월 고용률은 57.6%로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1%로 전년동월대비 0.8%p, 여자는 47.7%로 전년동월대비 1.0%p 각각 하락하였으며, 모든 연령계층에서 하락
 - 서울의 12월 고용률은 58.4%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4%로 전년동월대비 0.5%p 증가하였고, 여자는 48.1%로 0.7%p 하락
 - 서울의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57.6%)에 비해 0.8%p 높은 수준임

〈표〉 실업 및 고용 동향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실업률	전국	3.3	3.7	3.7	3.4	3.2	3.3	3.5	
	서울	3.9	4.8	4.5	4.3	3.8	4.2	4.1	
	성별	남자	4.8	5.6	5.2	5.1	4.3	4.7	4.4
		여자	2.6	3.7	3.4	3.2	3.2	3.6	3.6
고용률	전국	58.4	59.4	58.8	59.2	59.3	59.1	57.6	
	서울	58.6	58.4	57.5	57.6	58.0	58.5	58.4	
	성별	남자	68.9	69.0	68.0	68.0	68.7	69.4	69.4
		여자	48.8	48.3	47.5	47.8	48.0	48.2	48.1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건·설·경·기 |

2009년 11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11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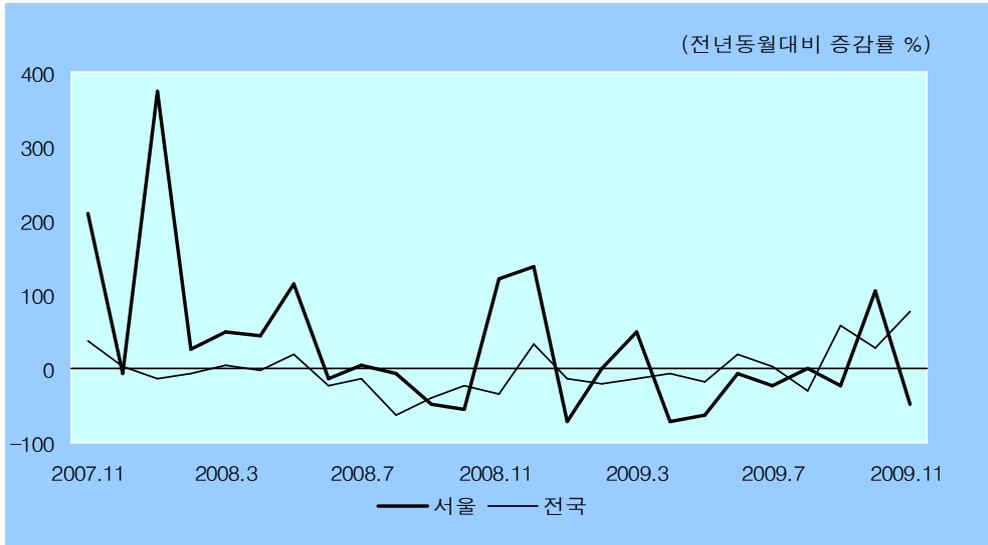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조 5,85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7.7% 감소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14조 4,245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7.0% 증가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11.0%를 차지
- 공공부문에서는 신규주택 및 토지조성 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대비 14.2% 감소, 민간 부문에서는 신규주택 및 재개발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대비 54.3% 감소, 공종별로는 전년대비 건축부문 61.9% 감소, 토목부문 208.5% 증가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 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1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국	8,151	5,527	4,352	8,741	10,415	14,425	77.0	38.5	
서울	3,029	740	864	840	1,925	1,585	-47.7	-17.7	
발주 자별	공공	596	40	102	278	229	512	-14.2	123.6
	민간	2,322	967	758	400	1,679	1,061	-54.3	-36.8
공종 별	건축	2,870	726	800	487	1,715	1,095	-61.9	-36.2
	토목	159	14	62	352	210	490	208.5	133.3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12월 서울 주택매매가격 강남북 모두 포함세

■ 12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크게 둔화

- 12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 상승하며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DTI 등 금융규제 강화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계절적 비수기를 맞아 거래가 더욱 감소하며 전월(0.3%)에 비해 상승세가 크게 둔화된 모습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각각 0.2%, 0.1% 상승하며 전월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단독주택(0.1%)은 전월과 동일한 상승률을 유지함

■ 12월 하락지역이 증가하며 강남북 모두 포함세

- 서울 강남지역(0.0%)은 금융규제 강화 및 재건축 아파트 가격 약세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이 지속되며 전월에 이어 보합 수준을 보였고, 강북지역(0.0%)도 매수세가 감소하며 보합세로 전환됨
- 시장을 선도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개월 연속 약보합세(0.0%)를 나타냈고, 단독(0.1%) 및 연립주택(0.1%)도 3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됨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2월	11월	12월	12월		
전국	100.0	101.3	101.5		1.5	0.1
서울	100.0	102.6	102.7		2.7	0.0
아파트	100.0	102.6	102.6		2.6	0.0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100.0	101.9	101.9		1.9	0.0
강남	100.0	103.4	103.4		3.4	0.0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지역 주택매매가격 포함세

- 강북지역(0.0%)에서는 광진구(0.3%)가 겨울방학 이사철을 앞두고 단독연립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전월에 비해 상승폭은 크게 축소되었고, 중랑구(0.3%)는 경전철과 상봉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 등의 호재가 매수심리에 영향을 주면서 목동과 면목동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됨.
- 반면, 서대문구(-0.1%)와 성북구(-0.1%)는 경기침체로 급매물이 증가하며 하락 전환됨

■ 강남지역 주택매매가격 포함세

- 강남지역(0.0%)에서는 강서구(0.3%)가 화곡동 일대 재개발 기대감에 따른 단독연립주택 수요 증가로 전월 하락에서 상승 전환되었고, 금천구(0.1%)는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등 호재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폭은 크게 둔화됨
- 반면, 서초구(-0.2%)는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강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되었고, 강남구(-0.1%)도 자금출처 조사 및 DTI 등 금융규제 강화로 관망세가 짙어지며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함

■ 12월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하락

-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12월 25일 기준)은 1,839.24만원으로 전월(1,839.52만원)대비 소폭 하락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386만원), 서초구(2,807만원), 용산구(2,579만원), 송파구(2,488만원), 양천구(2,016만원), 강동구(1,919만원), 광진구(1,864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음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34만원), 중랑구(1,134만원), 강북구(1,139만원), 도봉구(1,161만원) 등 순으로 나타남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12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둔화

■ 12월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둔화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3% 상승하며 매매가격 상승률을 상회하였으나, 계절적 비수기로 전반적인 상승세는 크게 둔화됨
- 수도권(0.1%)은 하락지역이 증가하며 전반적인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광역시(0.4%)와 기타 지방(0.4%)도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수도권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며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부산, 대전 등 일부 지역의 전세난이 지속됨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이 각각 0.3%, 0.1%, 0.2% 상승하며 전 유형에서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아파트의 상대적인 강세는 지속됨

■ 서울 전반적인 상승세 둔화, 방학을 앞둔 학군수요 증가로 일부지역 강세 지속

- 강북지역(0.1%)에서는 광진구(0.5%)가 방학을 앞둔 이사수요 증가로 공급불균형이 지속되며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상승폭은 크게 둔화되었고, 노원구(0.4%)도 상계뉴타운 이주수요 및 방학을 앞둔 학원가 이주수요 증가로 상승세를 지속함
- 반면, 종로구(-0.8%)는 최근 급등했던 전세가격이 비수기를 맞아 단독연립주택을 중심으로 하향 조정되며 크게 하락하고, 도봉구(-0.3%)도 비수기를 맞아 물량이 증가하며 하락 전환됨
- 강남지역(0.4%)에서는 하락지역 없이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전반적인 상승폭은 크게 축소된 가운데 서초구(0.8%)가 신혼부부 및 학군수요 증가로 반포동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강남구(0.7%)도 겨울 방학을 앞두고 학군 배정을 염두해둔 이주 수요 증가세가 지속된 반면 기존 세입자들의 재계약이 증가하면서 물량부족으로 높은 상승률을 지속함
- 양천구(0.6%)는 방학을 앞두고 선호하는 학교 배정을 염두해둔 이주 수요 증가로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상승세가 지속되었고, 송파구(0.4%)도 학군수요 증가 및 보금자리 주택과 위례신도시 대기자들의 전세수요 증가에 따른 물량 부족으로 상승세를 지속함
- 서울의 아파트가 0.4%, 단독연립주택이 각각 0.1% 상승하며 전 유형에 걸쳐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아파트의 상대적인 강세는 지속됨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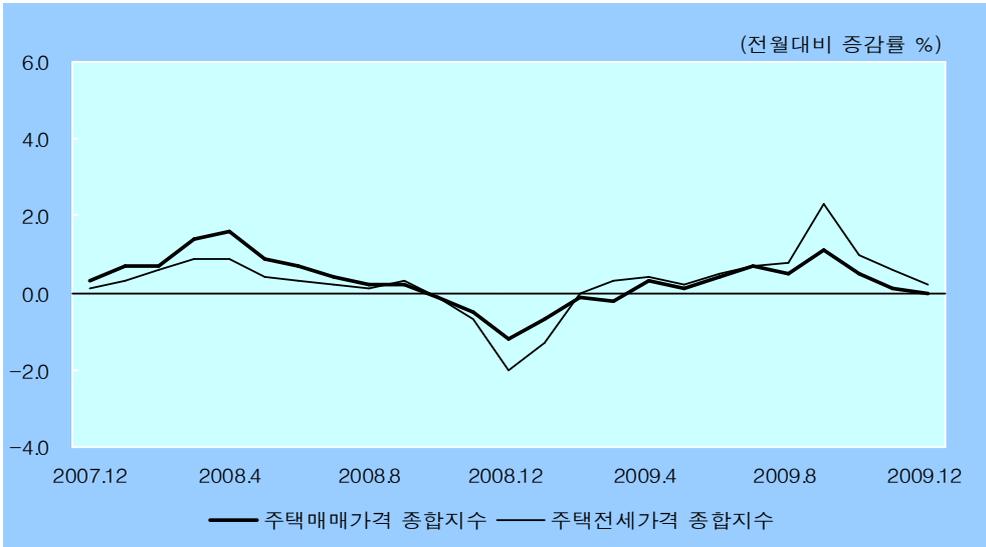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2월	11월	12월		
전국	100.0	103.1	103.4	3.4	0.3
서울	100.0	105.7	106.0	6.0	0.2
아파트	100.0	107.7	108.1	8.1	0.4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100.0	103.9	104.0	4.0	0.1
강남	100.0	107.5	107.9	7.9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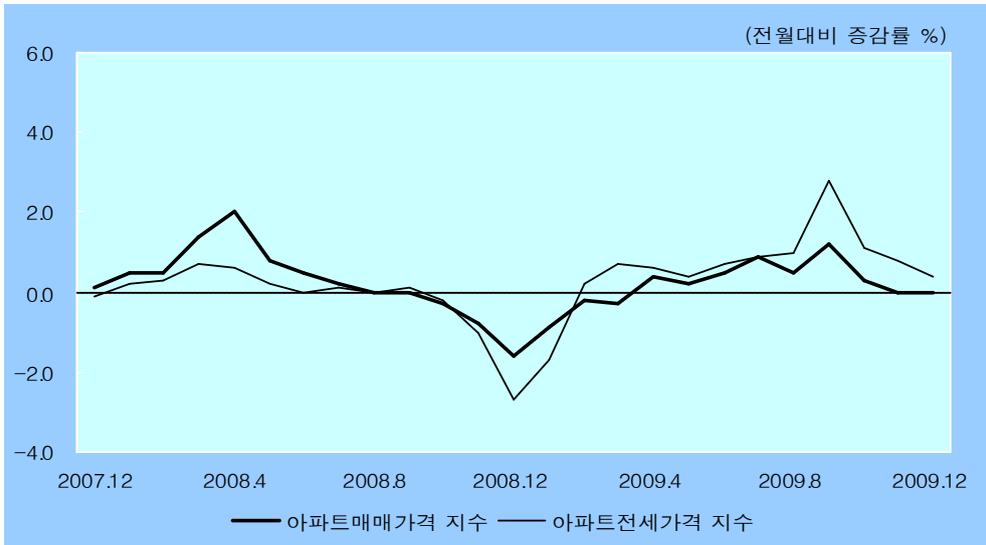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상승

- 12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0.6%로 전월(40.4%)보다 0.2%p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7월 38.9% → 8월 39.1% → 9월 39.7% → 10월 40.0% → 11월 40.4%)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12월 전국 평균 53.9%보다 13.3%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 전월(13.4%p)보다 소폭 하락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3.2%, 강남 38.4%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4.8%p이며 지난 달(5.0%p)보다 소폭 하락함. 지난 몇 달간 강남북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복하고 있음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12월 국고채 금리 큰 폭 상승

금리

- 국고채 금리 12월 큰 폭 상승
 - 국고채(3년) 금리는 12월 들어 국내외 주요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조정, 미국의 경기지표 호전 및 이에 따른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큰 폭 상승
 - 회사채(3년) 금리도 국고채 금리와 비슷한 움직임
- CD 금리는 12월 상승
 - CD(91일) 금리는 은행채 금리와의 역전 등으로 상승

주가

- KOSPI 지수 큰 폭 상승
 - 코스피지수는 11월말 경 두바이 사태의 충격이 진정되고 경기 회복기대가 강화됨에 따라 큰 폭 상승
(08년 10.24일 939p → 09년 10월말 1,581p → 11월말 1,556p → 12월말 1,683p)
- 12월중 외국인 순매수 규모 전월대비 확대
 - 12월 중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수 규모 전월보다 확대
외국인 순매수: 6월 2.3조원 → 7월 6.0조원 → 8월 4.1조원 → 9월 5.1조원 → 10월 1.6조원 → 11월 2.0조원 → 12월 2.3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	
	1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금리	국고채(3년)	3.97	4.42	4.40	4.47	4.32	4.24	-0.08
	CD(91일물)	4.68	2.48	2.64	2.79	2.79	2.82	0.03
	콜금리(1일)	3.27	1.98	1.99	1.99	2.00	2.00	0.00
	장단기 금리차 ¹⁾	-0.71	1.94	1.76	1.68	1.53	1.42	-0.11
주 가	KOSPI	1,114.90	1577.91	1659.45	1630.61	1583.47	1646.64	63.17
	KOSDAQ	324.98	515.61	523.16	501.83	477.15	498.35	21.20
환율 (₩/US\$)	1,368.80	1,239.69	1,215.00	1,174.80	1,163.18	1,166.13	2.95	

주: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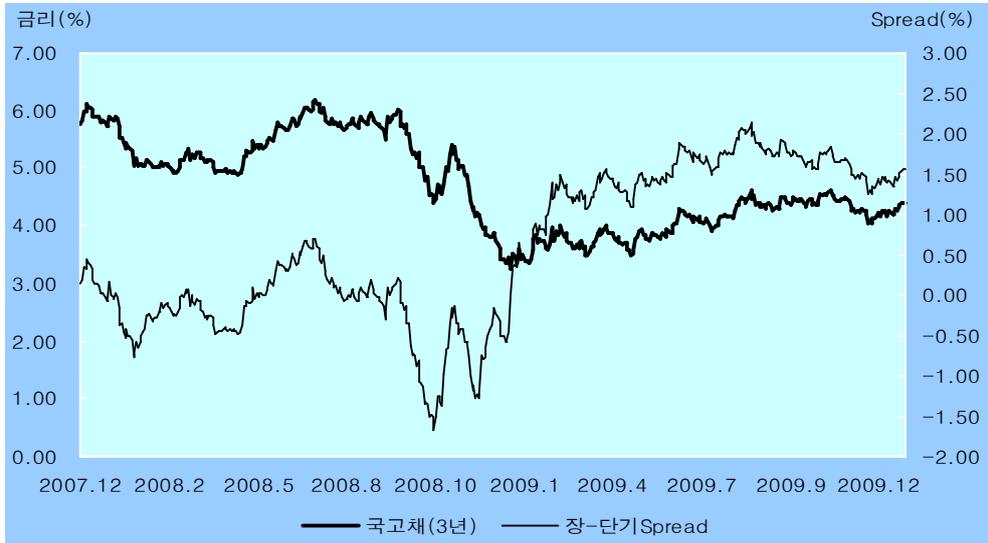
- 주택담보대출은 아파트 입주 및 분양관련 집단대출 증가 등으로 전월보다 증가규모가 확대
- 마이너스 통장대출 등 여타대출은 연말 상여금 지급 및 부실채권 상각매각 등으로 큰 폭 감소로 전환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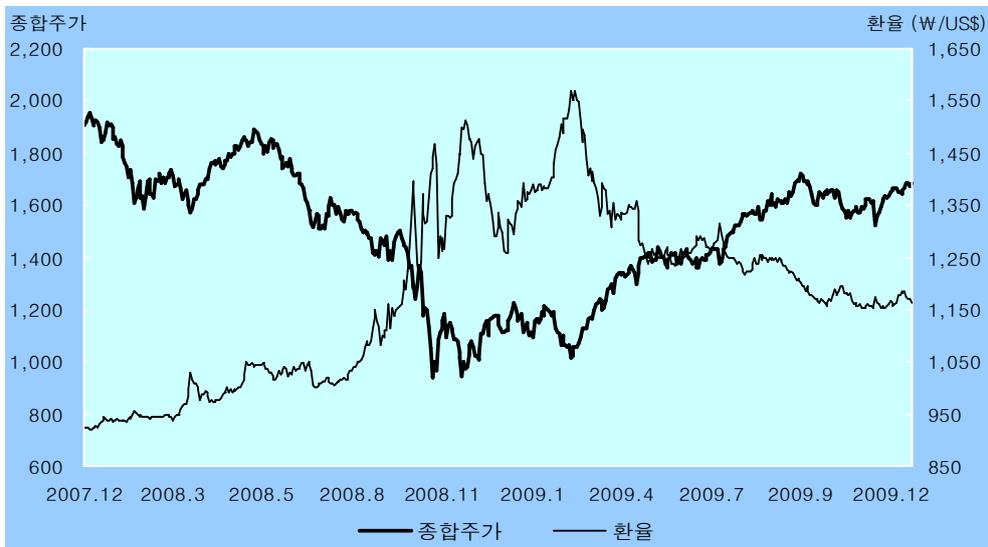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월말잔액		전월대비 증감률
	연중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9년		
							11월	12월	
가계대출 ¹⁾	25.0	3.0	-1.0	1.4	2.6	0.5	408.2	408.6	0.10
주택담보대출 ²⁾	18.1	2.8	-0.4	1.4	1.6	2.0	263.1	265.1	0.76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6.8	0.2	-0.5	0.0	1.0	-1.5	143.8	142.3	-1.04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11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11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266조 971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 4,294억원 (0.59%) 증가
- 11월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11조 651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1조 6,639억원 (0.33%) 증가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액	전월대비 증감률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전국	예금은행	920,259.60	956,229.6	958,578.1	958,048.5	963,885.1	5,836.6	0.61
	비은행기관	286,214.60	293,680.4	298,099.4	300,619.2	302,212.0	1,592.8	0.53
	합계	1,206,474.20	1,249,910.0	1,256,677.5	1,258,667.7	1,266,097.1	7,429.4	0.59
서울	예금은행	408,252.20	420,959.5	421,465.7	418,169.7	419,997.6	1,827.9	0.44
	비은행기관	89,060.10	88,895.4	90,509.6	91,231.5	91,067.5	-164.0	-0.18
	합계	497,312.30	509,854.9	511,975.3	509,401.2	511,065.1	1,663.9	0.33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11월중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전월대비 하락

- 전국적인 예금은행 예대율은 전월보다 0.1%p 상승하여 전월대비 소폭 상승 (6월 89.2% → 7월 89.8% → 8월 89.1% → 9월 87.7% → 10월 88.2%)
- 서울의 11월 중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60.8%를 나타내어 전월보다 0.3%p 하락한 수준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¹⁾ 추이

(단위 : %, %p)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전국	87.6	89.1	87.7	88.2	88.3	0.1
서울	61.5	61.7	61.2	61.1	60.8	-0.3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신 · 설 · 법 · 인 · 동 · 향 |

11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11월 신설법인은 4,690개로 전월비로는 3.3%(150개) 증가하여 1개월만에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40.8%(1,359개) 증가하여 6개월 연속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11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764개로 전월대비 3.5%(60개)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53.9%(618개) 증가
- 서울 모든 업종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11월 중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40.2%(388개) 증가, 제조업 111.5%(145개) 증가하였고, 건설 및 설비업은 152.9%(78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3,331	4,567	5,193	4,540	4,690	150	3.3	1,359	40.8
서울	1,146	1,638	1,876	1,704	1,764	60	3.5	618	53.9
서비스업	965	1,254	1,471	1,330	1,353	23	1.7	388	40.2
제조업	130	264	269	246	275	29	11.8	145	111.5
건설 및 설비업	51	112	131	122	129	7	5.7	78	152.9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상승

■ 전국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상승

- 11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 후)은 0.04%로 전월(0.02%)보다 0.02%p 상승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35개로 전월(124개)보다 11개 증가하였으나 예년 11월 수준(지난 5년간 평균 281개)을 크게 하회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보다 증가

- 11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전월대비 0.01%p 증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43개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며, 전년동월비로는 52.7%(48개) 감소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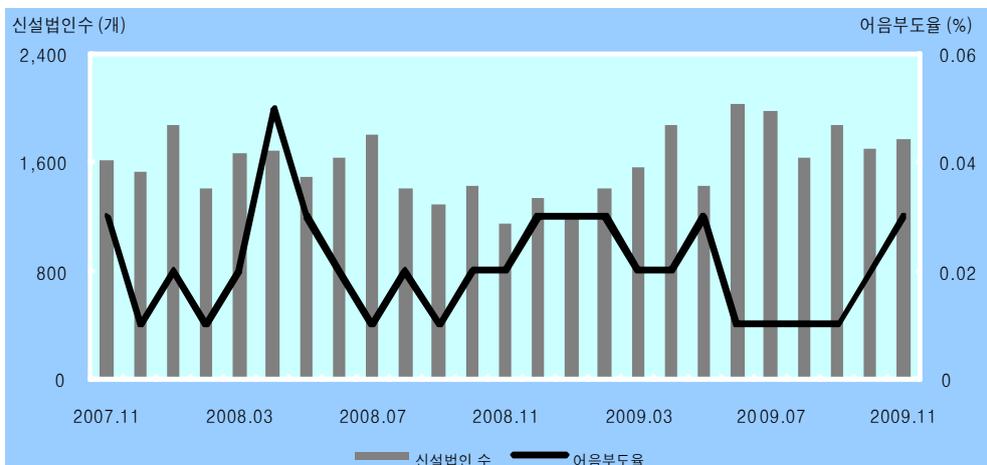
(단위: 개소, %, %p)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3	0.02	0.02	0.02	0.04	0.02	100.0	0.01	33.3
	부도업체 수	297	110	138	124	135	11	8.9	-162	-54.5
서울	어음부도율	0.02	0.01	0.01	0.02	0.03	0.01	50.0	0.01	50.0
	부도업체 수	91	35	57	43	43	0	0.0	-48	-52.7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자료임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안정적 보증공급 추세의 지속

■ 신용보증 건당 평균지원금액 전월수준 유지

- 12월중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3,577건, 51,605백만원으로 전월 대비 건수 기준 14.6%, 금액 기준 15.6%의 감소세를 기록함
- 전년 동월대비 건수 및 금액기준 총량규모 각각 2.8%, 18.9%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음
- 해당월 전반적인 공급 총량지표는 감소하였으나 건당 평균보증금액이 전월수준을 유지, 안정적인 보증공급 추세는 지속됨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3,679	13,036	13,699	5,197	4,187	3,577	-610	-14.6	-102	-2.8
금액	63,647	203,478	212,133	71,127	61,133	51,605	-9,528	-15.6	-12,042	-18.9
건당평균금액	17.3	15.6	15.5	13.7	14.6	14.4	-0.2	-1.4	-2.9	-16.8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제조업 및 서비스업 비중 소폭 증가

- 12월 기준 「업종별 신용보증 변동 현황」은 전월대비 제조업 비중이 건수 및 금액기준 각각 0.3%p(4.6% → 4.9%), 1.7%p(7.9% → 9.6%) 증가로 집계됨
- 서비스업 비중은 건수 및 금액기준 모두 0.8%p(50.8% → 51.6% 및 37.4% → 35.2%) 소폭 증가 추세를 나타냄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177	959	398	1,845	198	3,577
비율	4.9	26.8	11.1	51.6	5.6	100
금액	4,953	17,292	5,823	19,291	4,246	51,605
비율	9.6	33.5	11.3	37.4	8.2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중·소기업 지원비율의 증가추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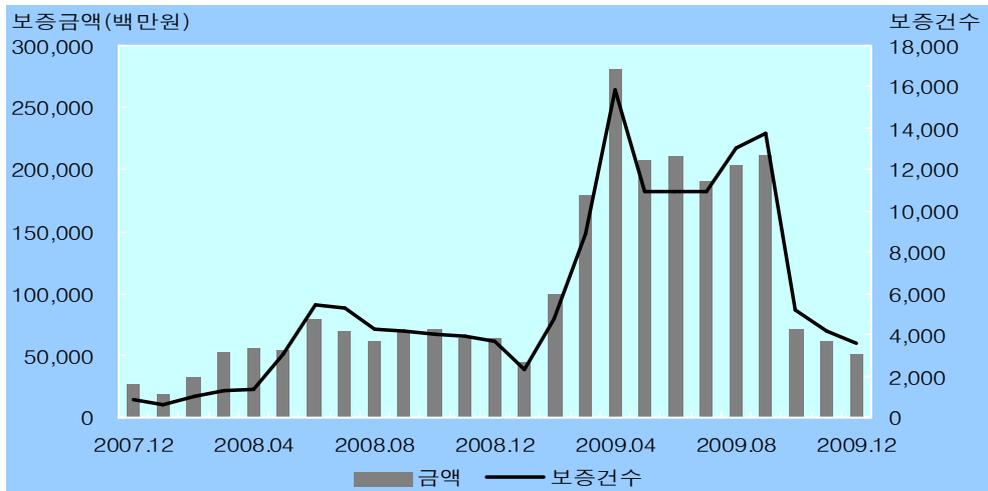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12월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차지비율이 전월대비 건수기준 0.7%p 증가로 집계됨
- 한편, 소상공인 지원비율은 전월대비 건수기준 0.7%p 감소세를 나타내었으나, 금액기준 1.6%p 증가율을 기록하며 안정적 지원추세를 이어감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9.10	2009.11	2009.12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5,102	4,081	3,461	-620
	비율	98.2	97.5	96.8	-0.7
	금액	66,820	50,334	43,322	-7,012
	비율	93.9	82.3	83.9	1.6
소기업	건수	73	72	81	9
	비율	1.4	1.7	2.3	0.6
	금액	3,134	7,277	5,802	-1,475
	비율	4.4	11.9	11.2	-0.7
중기업	건수	22	34	35	1
	비율	0.4	0.8	0.9	0.1
	금액	1,173	3,522	2,483	-1,039
	비율	1.7	5.8	4.9	-0.9
합계	건수	5,197	4,187	3,577	-610
	비율	100	100	100	0
	금액	71,127	61,133	51,605	-9,528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 대비 증가

- 전국 수출입 2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율
 - 전국의 수출은 360.1억 달러(전년동월대비 32.8% 증가), 수입은 329.2억 달러(전년동월대비 23.9% 증가)로 무역수지는 30.9억달러를 기록
 - 1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보이면서 월 기준 수출수입액이 연중 최고치 달성(월 교역액 연중 최고)
- 전국 수출 대다수 품목 증가, 수입 원자재 중심 큰 증가세
 - 수출에서는 선박·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대다수 품목이 증가한 가운데 11월보다도 5.9% 증가하면서 증가율·수출액 모두 연중 최고액
 - 수입에서는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중심으로 큰 증가세를 보이면서 11월보다도 11.5% 증가, 월 수입액도 연중 최고액 달성
-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 대비 증가
 - 12월 서울의 수출은 35.6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5.7% 증가하였고, 수입은 72.7억달러로 33.0% 증가
 - 전월대비로는 서울의 수출과 수입 각각 6.7%, 6.9% 증가
- 12월 기준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반도체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377,420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편직물, 컴퓨터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반도체가 가장 많아 584,569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컴퓨터, 석유제품, 자동차 등 순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이고,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으로 나타남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1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27,118	28,966	34,507	33,957	34,075	36,010	8,892	32.8	1,935	5.7
	수입	26,576	27,262	29,795	30,326	29,457	32,920	6,344	23.9	3,463	11.8
서울	수출	2,287	2,793	3,565	3,172	3,338	3,561	1,274	55.7	223	6.7
	수입	5,469	6,470	7,073	6,682	6,802	7,273	1,804	33.0	471	6.9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12월		2009년 1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3,744	121.4	377,420	1018.5
2	자동차부품	84,244	-15.5	213,702	153.7
3	편직물	173,803	7.0	207,434	19.3
4	컴퓨터	101,762	17.9	180,707	77.6
5	반도체	101,420	-51.5	172,067	69.7
6	합성수지	73,638	-28.2	154,910	110.4
7	무선통신기기	145,907	75.0	141,102	-3.3
8	고무제품	95,021	-11.3	128,379	35.1
9	합성고무	24,309	29.2	99,845	310.7
10	의류	85,494	-7.8	92,221	7.9
합계		2,287,261	-0.5	3,561,437	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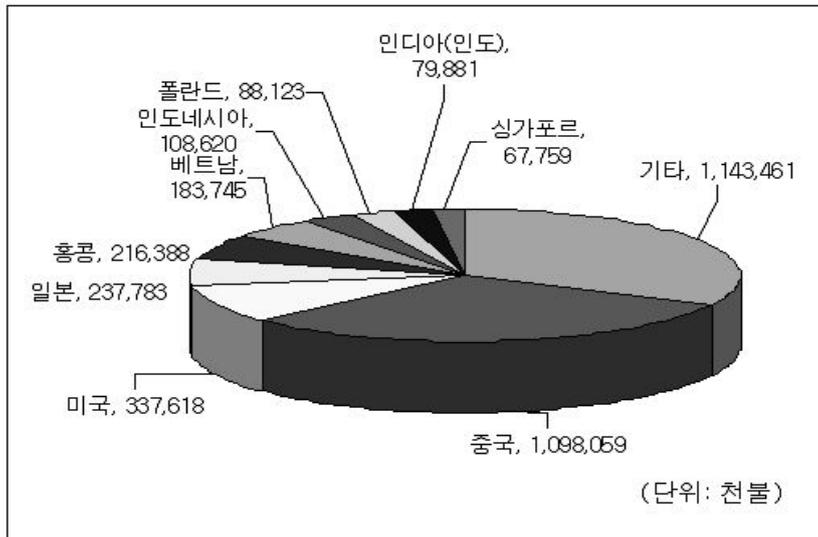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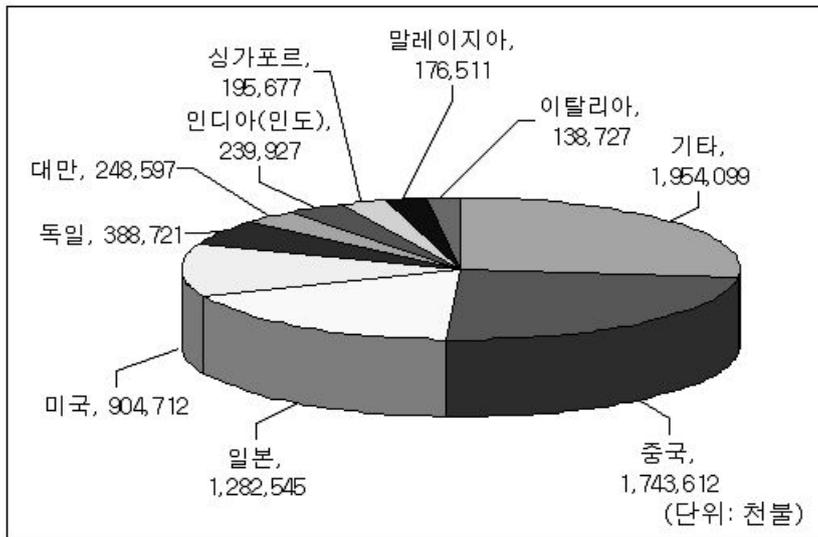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12월		2009년 1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427,866	7.0	584,569	36.6
2	컴퓨터	414,635	-29.8	461,695	11.3
3	석유제품	44,347	-67.5	437,645	886.9
4	자동차	117,478	-55.9	245,222	108.7
5	의류	184,242	-17.4	202,248	9.8
6	무선통신기기	117,652	26.2	197,595	67.9
7	농약 및 의약품	111,178	0.9	189,806	70.7
8	플라스틱제품	70,631	-4.8	186,966	164.7
9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124,266	-29.3	176,832	42.3
1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77,273	117.8	132,164	71.0
합계		5,468,875	-16.2	7,273,128	33.0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